

Tacking(태킹) : “역풍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가다”

“역풍에 맞설 수 있는 힘은 명확한 목표와 팀워크, 그리고 축적된 경험과 기술에서 나온다.
준비가 된 자는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. 이것이 곧 본질에 거는 승부수가 된다.”

노련한 배잡이는 “역풍(逆風)을 이용해서 앞으로 전진”한다. 요트에서는 이 기법을 태킹(Tacking)이라 하며 이 기술이 있어야 바다에서 자유자재로 배를 움직일 수 있다. 하지만 맞바람에 맞서 싸우는 것은 훈련된 사람들도 쉽지 않은 고난도의 기술과 경험을 요구한다. 지그재그로 뱃머리를 돌리며 몸과 돛과 Key의 각도를 순간순간 최적으로 조정해야만 바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.

수천 년간 바닷길을 열고 문물을 이동시킨 범선도 역풍에 맞설 수 있는 항해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. 먼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역풍을 이겨내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. 망망대해를 달리는데 역풍은 자연스런 현상이며, 피할 수 없는 Fact인 것이다. 일등 항해사에게 두려운 건 역풍이 아니라 바람이 없는 고요한 바다인 것이다.

역풍에 맞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배잡이는 단 두 가지 선택 밖에 없다. 배를 띄우지 않든지, 집 앞에서만 고기잡이를 해야 한다. 그에게 먼 바다는 두려움의 존재일 뿐이며, 바다 너머에 새로운 세상은 인식체계에도 없을 것이다. 설령 먼 바다에서 있었던 재미난 모험담이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남의 이야기에 불과하며, 절대 자신의 삶 속 한 부분으로 새겨 넣을 수 없을 것이다.

역풍에 맞설 수 있는 힘은 명확한 목표와 팀워크, 그리고 축적된 경험과 기술에서 나온다.

준비가 된 자는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. 이것이 곧 본질에 거는 승부수가 된다.

오늘날은 local과 global의 경계가 없다. 오직 하나의 세계만이 존재할 뿐이다. 그 안에 무수한 경쟁자가 있는 듯하지만, 결국은 완벽을 지향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부는 갈린다. 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볼 수 있고, 용기가 있어야 도전할 수 있다.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가야 할 방향에 대한 확고함이 곧 힘의 원천이다.

2012년 우리는 망망대해에서 한 해를 맞이하였다.

유로존 국가위기에에서 비롯된 세계경제의 먹구름이 짙게 깔려있다. 여러 정치사회적 이슈들도 기업들의 경영예측을 혼란스럽게 한다.

우리는 그 속에서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한 닻을 높이 올려야만 한다.

해외에 있는 Carrotian들과 강사들과 함께 2012년 건승을 기원한다!!

We Provide The Global Success !

Written by C.E.O James Roh

“행동은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, 책임의식에서 기인한다”



James Roh

